

2011년 청보리순례단 인도 성지순례 모습.



2015년 '불교개척자학교' 제1기 개척강사 양성과정 선포식.



동덕여고 불교학생회 탈춤동아리 공연 모습.

'청보리' 운동 이끌며 포교…"진짜 불교 해보고 싶다"

〈청소년 깨달음〉

50여 년 전법 · 포교 한 길

동덕여고불교학생회 창립 이끌어

청소년축제 '연꽃들의 행진' 신설

70~80년대 청소년 포교 붐 조성

인도 8대 성지순례 영상교재제작

"부처님 당시 불교 복원해야"

'붓다 스터디' 새로운 전법

부처님 시절 '빠리사 운동' 전개

불교개척자학교 개설 지도자 양성

〈화엄코리아〉 〈붓다의~〉 출간

'김재영 법사'

B1면에서 계속

김 법사의 입과 귀는 그렇게 열렸다. 입과 귀를 부처님의 이야기로 연 김 법사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모친의 손에 이끌려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모친과 함께 통도사의 마산포교당에 다녔다. 고암 스님이 계셨다. 고2 때는 친구의 권유로 학생법회에 가입했고 회장도 했다.

"솔직히 그 땐 부처님 공부, 그런 것 때문에 절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절에 가는 게 좋아서 갔고, 반갑게 맞아주는 스님이 좋아서 갔고, 무엇보다 절에 가면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갔었죠. 초파일 때 친구들과 밤새 연등 만들면서 어울리는 게 좋아서 절에 갔었죠. 그 때의 절은 그랬어요. 절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불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절이 예전의 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 알리기 위해 부르면 안 됩니다. 교리 가르칠 생각부터 하면 안 됩니다. 우선 절에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에 다니다 보면 자꾸 부처님 보게 되고 부처님 보다보면 부처님 가까이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절이 시대적으로 청소년들과 부합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훗날 김 법사가 포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불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삶을 바꾼 〈법구경〉

고1 겨울방학 때였다. '사춘기' 였을까. 김 법사 역시도 많은 생각을 짓고 부수며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한 몸짓을 시작했다. 김 법사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에 대한 생각에 갇힌다. 매순간 '죽음' 이라는 단어가 눈앞을 가로막았고, 그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까' 등등 김 법사의 사춘기는 죽음의 문제에서 방황을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업이었을까. 김 법사는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버리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살게 된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몸부림을 쳤다. 대학과 군복무를 마치고 동덕여고 국사교사로 부임할 때까지도 김 법사는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 나오지 못했다. 위태로운 삶이었다.

"학생들 앞에 서야하는 교사였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나날을 보냈죠. 한 자리에 있지를 못했고, 차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1967년 김 법사가 고3 담임을 맡고 있을 때였다. 그날도 역시 김 법사는 위태롭고 불안했다. 교정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던 김 법사의 발길이 머문 곳은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을 서성이던 김 법사의 눈에 책 한 권이 들어왔다. 〈법구경〉이었다.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김 법사는 먼지를 털어내고 〈법구경〉의 첫 장을 열었다. 첫 게송은 김 법사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리고 김 법사는 마음속에 불안과 위태로움으로 엉겨붙어있던 죽음의 문제들을 순식간에 씻어낼 수 있었다.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의 많은 시간을 절에서 보냈고, 많은 법문을 듣고 살았는데도 부처님의 글자를 보지 못했던 거죠. 뒤늦게 부처님의 글자가 보였던 거죠."

동덕여고 불교학생회…청소년 포교의 시작

1970년 7월 18일, 서울 동덕여고에서는 위대한 불사가 있었다. 유정애 학생대표의 발원문 낭독과 함께 200여 명의 여고생들이 사홍서원을 합창했다. '동덕여고불교학생회' 탄생이다. 전국을 통틀어 불교학생회가 10여 곳에 불과했던 시절이었다. 어린이불교, 청소년불교가 전무하던 시절에서 종립학교도 아니었던 동덕여고의 불교학생회 탄생은 의미 있는 불사였으며 '사건' 이었다. 그 불사의 배경과 중심엔 김재영 법사가 있었다.

뒤늦게 부처님의 글자에 눈을 뜬 김 법사는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법구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꼭꼭 씹어 읽었다. 눈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받아들인 공부였다. 6개월에 걸쳐 〈법구경〉을 마친 김 법사는 1년에 걸쳐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마치고 각종 경전과 불서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그렇게 김 법사의 공부는 하루하루 늘어갔고, 국사를 가르쳤던 김 법사는 수업 시간에 간간히 부처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수업은 점점 재미를 더했다.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동덕여고불교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 어느 날, 학생들이 김 법사를 찾아왔다. '불교반' 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학교는 특별활동의 하나로 '불교반' 을 인가했고, 그 불교반의 이름은 '동덕여고불교학생회' 였다. 200여 명으로 시작한 '동덕여고불교학생회' 는 750여 명으로 늘어났다.

김 법사는 부처님 가까이 온 아이들을 계속 부처님 품에 머물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연꽃들의 행진' 이 그것이다. 김 법사의 사비와 약간의 후원금으로 시작된 '연꽃들의 행진' 은 청소년불자들이 참여해 합창, 연극, 탈춤 등의 공연을 펼치는 축제의 무대로, 1999년까지 매년 열렸다. 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참여 학생과 불자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동덕여고 불교학생회' 의 창립은 청소년 불교운동에 불을 지폈다. 서울 대원정사, 청룡사 등 사찰학생법회가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로 인해 대학교불교학생회가 늘어나고 넓어졌다. 동덕여대 불교학생회가 창립됐고, 성신대, 서울대, 한양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의 불교학생회가 속속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어진 불사는 다시 청년 불자모임으로 이어졌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청보리' 라는 이름 아래 모였다. '청보리회' 는 '청보리 운동' 과 한 이름으로 다른 단체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청보리' 는 모든 불교학생회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그리운 도반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부처님 공부하고 '청소년(청) 깨달음(보리)' 운동을 돕는 것이다.

김 법사가 중심이 되었던 동덕여고 불교학생회는 문화를 통한 포교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부처님 가까이 이끌었고, 1970~1980년대 청소년과 청년포교의 중흥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김재영' 이라는 작은 씨앗 하나가 커다란 불사로 이어진 것이다. 〈법구경〉 한 구절에서 시작된 대작불사다.

붓다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

"불교,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우리도 붓다 석가모니의 일생 그대로, 진짜 불교 한 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 초라하고 지루한 인생, 한 번 멋있게 신명나게 바꿔가고 싶다. '그게 불교냐?', 많은 친구들이 외면하더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라도 가고 싶다.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 살아온 '불교인생', 너무 허망하지 않을까?"

지난 10월 김 법사가 출간한 〈붓다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 - 동쪽나라〉의 서문 일부다. 비장한 서원이다. 흔들리지 않는 불심이다. 책은 '붓다 스터디' 를 위한 시리즈로 〈화엄코리아 · 2017〉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온갖 잡것들(雜華)들, 잡초(雜草)들이 들풀처럼 한데 어울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화엄불국토' 를 개척하고픈 염원을 담고 있다. 1권 〈화엄코리아〉가 현실 비판과 미래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책은 룸비니(탄생)에서 쿠시나라가(열반)까지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 부처님의 불교를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집필을 준비하고 있는 3권은 잘못된 현재의 불교를 바로 잡는 노력이 될 것이라고 김 법사는 말한다.

50여 년 동안 불교 포교에 헌신해 온 김 법사의 서원은 함께 '부처' 를 만나자는 것이다. 붓다의 일생과 우리들의 일생이 하나이기를 바란다. 맨발로 걸을 수 없는 시대에 맨발로 한 번 걸어보자는 것이다. 이 시대의 '맨발' 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